

전주서 만나는 일상 속 한복문화 진수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문화주간' 맞아 한복관련 체험·행사·교육 등 다채롭게 진행

한복의 날(10월 21일)을 맞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2023 한복문화주간 행사의 막을 열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한복의 날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7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옥마을에 소재한 우리놀이터 마루달 일대에서 '2023 한복문화주간' 행사 '풍류한·복'을 개최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는 이번 한복문화주간 행사에서는 한복 관련 체험, 행사,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소재한 한복문화작소(1층)에서 한복 관련 전공자가 참가한 '복'을 입고 덕은공주 당의 제작을 시연하는 △오른 스튜디오 '예비 패션장의 하루'가 운영된다.

또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당 5층 한복문화작소에서 △장롱 속 한복 리폼하기 △한복소품 만들기 체험 및 교육이 진행된다. 주말인 21일과 22일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복을 무료 대여 해주는 △한복입기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영화 '안시성'을 비롯해, '구르미 그린 달빛', '연인' 등의 드라마에서 의상감독으로 활동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희 교수의 기조 발제, '미래로 가는 한복의 길'이 주목되는 이유는 한복이 'K-컬처' 외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화되면서 독립적 콘텐츠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세션 주제 발표에 나서는 △한복남 박세상 대표 △한국실�크연구원 고탁 선임연구원 △더수 한복 김은미 실장 △유네스코야생무형유산센터 서진영 선임전문관은 한복의 대중화, 실용성 확대 소재 개발, 유아용 한복의 가능성, 무형유산 한복생활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한복이 걸어갈 새 새로운 길을 안내 전

망이다. 이번 포럼에서 주목할 또 다른 세션은 전주·부안·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복 해커톤 결과공유'다. 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의상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사전에 한복 관련 해커톤을 진행하고 조사된 내용과 본인들만의 대안을 이날 포럼에서 발표하게 된다. MZ세대가 바라보는 한복문화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대한민국 한복문화의 대중화를 이끈 전주한옥마을을 가진 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한복포럼은 학술적 의미보다는 현장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서 기자



한복의 날(10월 21일)을 맞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2023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사진은 2021 한복문화주간 모습)

데이먼트 요소를 넘겨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써의 한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화 '안시성'을 비롯해, '구르미 그린 달빛', '연인' 등의 드라마에서 의상감독으로 활동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희 교수의 기조 발제, '미래로 가는 한복의 길'이 주목되는 이유는 한복이 'K-컬처' 외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화되면서 독립적 콘텐츠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세션 주제 발표에 나서는 △한복남 박세상 대표 △한국실�크연구원 고탁 선임연구원 △더수 한복 김은미 실장 △유네스코야생무형유산센터 서진영 선임전문관은 한복의 대중화, 실용성 확대 소재 개발, 유아용 한복의 가능성, 무형유산 한복생활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한복이 걸어갈 새 새로운 길을 안내 전

망이다.

이번 포럼에서 주목할 또 다른 세션은 전주·부안·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복 해커톤 결과공유'다. 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의상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사전에 한복 관련 해커톤을 진행하고 조사된 내용과 본인들만의 대안을 이날 포럼에서 발표하게 된다. MZ세대가 바라보는 한복문화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대한민국 한복문화의 대중화를 이끈 전주한옥마을을 가진 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한복포럼은 학술적 의미보다는 현장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서 기자



장수 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성료

총 8개 부문 경연 펼쳐... 명창부 대상 이치현 씨 등 수상

장수군은 지난 13~15일 (사)금강유영에 소리보존회와 공동주최로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4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논개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로 나뉘어 총 175명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 이치현(서울특별시)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임소연(충북 청주) △논개부 대상(전라북도지사상) 이연주(광주광역시) △신인부 대상(장수군수상) 권도연(대전광역시) △고등부 대상(교

육부장관상) 정호영(전북 장수) △중등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 변관영(전북 남원) △초등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 김리원(충남 당진) △초등 논개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 이정민(전북 장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의암 주는개념의 숭고한 애국 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판소리를 통해 그 정신을 널리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장은서=고관호 기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무주군, 21일 최북미술관서 개최... 전시·공연·체험 등 가을 축제 풍성

무주군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 및 광장(특별무대)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이정숙)가 주관하는 것으로 '손노리퀵트'를 비롯한 15개 동호회에서 바느질과 원예, 정크아트, 캘리그래피 작품을 공유하는 연합전시회(10.19.~20.)에 참여하며 공연은 '빛두드림난타' 등 16개 동호회가 무대에 올라 난타와 통기타, 춤, 오카리나, 노래 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목공힐링공방' 등 11개 동호회에서 두건 만들기, 꽃차 시음, 프라모델, 우드버닝, 미니 의자 색칠하기, 캘리 양초 만들기, 인형 만들기, 3D전시지 체험, 지수 체험, 꽃다발 만들기, 꽃잎 향수 만들기, 토시 만들기 등이 가능한 '프리마켓 & 체험 부스'도 마련해 페스티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김성욱 문화정책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또 마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동호회원들 노력의 결실을 공유하는 장으로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기에 그만인 날"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서 기자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장수 한누리전당서 전시

장수군의 향토작가와 출향작가의 서예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전시회가 오는 23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열린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관내 향토작가 29명, 출향작가 15명 등 총 44명의 작가가 참여해 이들의 다양한 서예, 문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군은 17일 최훈식 장수군수, 정정복 군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참여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한규하 장수지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장수군



만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서예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서=고관호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 민화 회원전 개최

진안군은 1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마이산 명인명품관 전시실 1층에서 평생학습 민화그리기 회원들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군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화그리기 수업'의 김애자 강사를 비롯한 수강생 10여명이 야생화를 주제로 그린 작품 150점을 전시한다.

진안군은 지난해 7월 수강생 10명을 대상으로 민화그리기 수업을 시작했다. 올해 수업은 3월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들어가 야생화의 매력을 담은 작품들을 완성했다.

진안군은 이 밖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ESG

— 녹색 경영 — — 나눔 경영 — — 청렴윤리 경영 —

농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 확장 지역사회 상생 발전 지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함께하는 100년 농협

ESG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좋아지게

농촌과 도시를 더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더 좋아지게

자연과 기술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땅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기업과 국민이 더 조화롭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더 좋아지게

NH농협이 앞장섭니다

부안농협조합장 김 원 철

남부안농협조합장 최 우 식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김 삼 형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 정 식

변산농협조합장 김 병 식

계화농협조합장 이 석 훈

하서농협조합장 기 세 원